

LS전선, R&D센터 군포로 이전

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... LS엠트론도 기술경쟁력 향상 주력

LS전선과 LS엠트론은 4월20일 구자열 LS전선·LS엠트론 회장, 손종호 LS전선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양에서 군포로 이전한 연구개발(R&D) 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4월22일 발표했다.

R&D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전한 군포 R&D센터는 지하 1층, 지상 5층으로 건평이 안양센터의 2배인 1만2700㎡에 달하며, 석·박사급 인재를 포함해 총 500여명의 연구원이 근무한다.

LS전선은 본사 R&D센터, 중국 무한 R&D센터, 북미와 유럽의 SPSX연구소 등을 하나로 묶는 글로벌 R&D 체제 구축을 완료했고, 본사 R&D센터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.

LS전선은 연구소에 기반기술연구센터, 에너지 시스템 연구센터, 솔루션 연구센터, 생산기술센터, 어플리케이션센터 등을 두고 첨단 전선 개발과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집중한다.

초전도, 초고압, 해저 등 친환경 에너지 전송효율 극대화 기술, 유·무선 통신 솔루션 관련 핵심기술과 제품, 에너지·통신 융합 인프라, 전기자동차 관련제품과 시스템 등을 집중 연구 개발한다.

LS엠트론은 군포에 입주한 중앙연구소와 함께 각 사업장에 트랙터연구소, 사출연구소, 회로소재연구소, 전자부품연구소 등을 두고 장기적인 R&D전략을 수행하게 된다.

특히, 2015년 매출 4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핵심기술을 선정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.

LS엠트론은 하이브리드 트랙터, 전동식 사출기 등 친환경 신제품 개발과 전기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전지박, 울트라 캐패시터(Ultra Capacitor), 냉각호스 등 첨단 부품소재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.

최근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초고속 광전 커넥터, 플렉시블 태양전지용 기반소재 등 선행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23>